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9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30일 (음력 3월 15일) 월요일

## 민주당 경선 후보별 가·감산도 '깜깜' 지적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중앙당이 경선 가·감산 기준을 미리 공지하고 당헌상 가·감산을 공표토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후보지도 유권자도 '깜깜'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0일 광주 동·서·북·광산구 등 4개 구청장 경선 후보(컷오프 통과자) 13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남구는 지난 27일 김병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추천자로 확정했다.

컷오프에 반발한 재심 청구자들에 대한 인용과 기각, 후보 단일화 무산 등의 진통 끝에 최종적으로 동·서·광산은 4인 경선, 북구는 3인 경선, 남구는 단수추천 지역으로 분류됐다. 구청장 후보 최종 라인업은 5월 3~4일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ARS투표 50%와 시민 안심번호 ARS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될 예정이다. 광역·기

### 당헌 108조 '가·감산 공표' 필수조건으로 명시

### "정말로 감점 받는지, 몇 퍼센트인지 알 길 없어"

### 경선 파행 부채질...시당 "악용 우려 비공개 원칙"

초의원 후보자는 28~29일 권리당원 100% ARS투표를 거쳐 이르면 30일 확정, 발표된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여수·순천·장흥·강진 등 4곳에서 현역이 탈락하고 3선 연임제한 바리 연루지역까지 합하면 모두 10곳의 불합격이 확정됐다. 11곳은 경선을 거쳤고, 9곳은 단수추천, 1곳(신안)은 전략공천, 1곳(북포)은 5월 2~3일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광역의원 52개 선거구 중 28곳은 단수

추천하고, 29곳은 25~26일 권리당원 100% ARS 경선으로 후보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조문 신설과 개정작업을 거쳐 당헌 제108조에 '경선 가·감산은 중앙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경선 후보자와 방법이 확정될 때 함께 공표한다'고 '가·감산 공표'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다.

지난 3월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경선률에서도 이같은 규정을 거듭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점의 경우 ▲여성과 중증장애인 25% ▲만29세 이하 청년 25% ▲민30~35세 20% ▲민36~42세 15% ▲민43~45세 10% ▲전·현직 국회의원 여성 자치체장 또는 지역위원장 10% ▲정치 신인 10% 등이다. 반면 페널티는 ▲경선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 각 20%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10%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해당자 10% 등이다.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하며, 중복 가·감산은 금지했다.

그러나 컷오프 후나 경선 진행 과정에서 후보별 가·감산은 전혀 공표되지 않고 있어 경선 결과 발표 후 반발과 불복,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의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헌과 경선률에 따라 후보별 가·감산 내역을 사전 고지하는게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각 캠프별 전략수립과 대응책 마련, 경선 흥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가·감점이 적용되면서 경선순위가 뒤바뀌고 당파와 화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전북의 경우 탈당 감점, 신인 또는 여성 가점 등이 적용되면서 10곳 중 1곳 꼴로 경선 후보자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돼 가·감산제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광주 모 구청장 경선후보는 "누구는 탈당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감점을 받는 건지, 누구는 몇 퍼센트의 가산점을 받는지 알 길이 없다"며 "당에 문의해도 본인 아니면 알려주지 않고 그나마도 재심을 청구해야 비로소 '내 점수'를 알 수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 광역의원 후보는 "명쾌한 설명이 없다 보니 출세하기 편 가르기,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자만해선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대상과 정치도의적 배신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당적이 없는 한 시민은 "발로는 50% 시민여론을 반영한다지만 어느 후보가 가점 또는 감점을 받는지 운통 깜깜하다"며 "지리한 후보가 중대하자가 있었는지, 상대 후보의 당 기여도가 높았는지, 최종 후보자가 정해진 뒤에야 알게 돼 어이없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후보별 가·감산을 공표하면 네거티브나 과대 포장에 악용될 소지가 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녹차밭 사이 길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인 지난 주말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남쪽자락에 자리한 월출다원에서 펼쳐진 '강진월출산 봄 소풍 가는 날'을 찾은 관광객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교복을 입고 파릇파릇 울러온 녹차밭을 거닐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 Photo 漫評

불신

이국종 이주대 외과대학 교수가 국회에서 의원들을 따끔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외과의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토론회를 주관하고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2월 국회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하는 국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의학전문지 헬스포커스에 따르면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이자 이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렇게 왜 외과학회 수장을 한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이 자리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어제 당적을 사며 한 시간도 못 잡고 발표자료를 만들었지만 소용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 민주평화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6곳 경선 결과 발표

### 김재찬·허식진 후보, 광역의원 후보 선출

민주평화당이 28일 광주지역 6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현장 경선을 실시, 후보자를 확정했다.

경선 결과, 북구3 선거구에서는 김재찬 후보가 53.1%의 득표율로 임봉민 후보를

누르고 광역의원 후보로 선출됐다. 북구6 선거구에서는 허식진 후보가 54.2%로 이병석 후보를 제쳤다.

기초의원 순위 경선에서는 북구 다선 거구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마광민 후보

가, 김정원 후보가 나 순위로 결정됐다. 북구 라선거구는 김태환 후보와 이관식 후보가 각각 가 나 순위를 차지했다.

북구 마선거구에서는 양일욱 후보가 1위로 가 순위, 최영규 후보가 나 순위로 결정됐고, 북구 바선거구는 선승연 후보가 47.9% 득표율로 가 순위, 강성훈 후보가 26.2% 득표로 나 순위로 결정됐다.



##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

2018 05.02wed ~ 05.07mon

죽녹원 및 관방제림 일원

